

‘살롱 드 양림’ 첫 선... 1930년대 광주를 노래하다

내일, 3월의 문화가 있는 날... 풍성한 봄 문화행사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양림동서 모던 콘서트·공연
4월부터 연극 ‘모던 걸 다이어리’·강연·프리마켓 진행
아시아문화전당 브런치 콘서트 ‘손현주의 국악 이야기’
전남도립국악단 ‘수요 음악회 휴’ 등 음악·전시회 풍성



‘살롱 드 양림’ 행사가 열리는 양림동 다형다방.

‘문화가 있는 날’(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양림동을 느릿느릿 걸으며 1930년대 그 시절로 돌아가 보자. 근대를 소재로 한 토크 콘서트와 음악 공연에 참여하고, 미술관에 잠시 들러 그림 감상에 빠져도 좋다. 손에는 무료로 제공되는 따뜻한 커피 한잔 들려 있다면 더 좋겠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융성위원회가 적극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공연장과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지역 거점 특화 프로그램’ 7개를 선정했다.
광주에서는 ‘광주 1930을 노래하는 살롱 드 양림(Salon de Yanglim)’이 선정돼 오는 30일 첫 선을 보인다. ‘살롱 드 양림’은 광주의 근대(1930년대)를 소재로 마을 전역을 무대 삼아 펼쳐지는 문화예술 행사다.
30일 열리는 올 첫 프로그램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진행된다. 카페 파우제(오후 6시30분~9시)에서는 강연과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문화 기획자 정현기의 ‘모던 보이, 양림을 거닐다’에서는 1930년대 모던 보이 정음성과 정추, 정준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인디언 수니가 ‘모던 예찬 콘서트’를 연다. 미술관 재즈 콘서트(오후 6시~8시30분)도 한희원 미술관에서 열린다. 양림동 출신 화가 한희원 선생이 들려주는 미술 이야기와 함께 청년 재즈 그룹 ‘Auto Duo’의 연주 무대가 이어진다.
양림동에 위치한 카페(파우제, 애프터티, 카페 도도시, 한희원미술관)들이 참여

한 무제한 커피데이(오후 6시~9시)도 운영한다. 양림동 다형다방에서 전용컵을 받아 카페를 방문하면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다.
본격적인 행사는 4월부터 열린다. 광주의 근대를 소재로 한 문학, 전시, 음악, 영상, 패션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살롱 공연, 강연과 함께 장소 특정형 연극 ‘모던 걸 다이어리’, 프리마켓 행사 등이 펼쳐진다. 문의 070-4239-5040.
봄을 맞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더욱 풍성해졌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오전 11시 ‘ACC 브런치 콘서트 ‘쉼(Shium)’ 두번째 행사 ‘배우 손현주의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를 개최한다. 2005년 장애인 어린이 합창단 ‘에반젤리’를 창단하고 현재 단장을 맡고 있는 손현주와 미국인 가야금 명창 주자 조세린씨가 함께 꾸미는 무대다. 티켓 2만원. 문의 1899-5566.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유장영)은 오전 11시 ‘해설이 있는 수요음악회 휴(休)’를 선보인다. 지난해 개관한 남도소리올림픽에서 열리는 행사로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이기도 하다.
30일에는 국악실내악 ‘다향’, 국악 가요 ‘너영 너영’, ‘배 띄워라’ 25현 가야금 연주 ‘황금산의 백도라지’, 강선영류 태평무, 설장고 등이 펼쳐진다. 관람료는 무료. 문의 061-285-6928.
담당 대담미술관에서는 오후 4시 미술과 미용(헤어)이 융합한 ‘봄을 채우3-봄보고 가세’ 행사가 열린다.



전남도립국악단이 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수요 음악회 휴(休)’

미술관 야외무대에서 오창록 한국화작가가 대형 캔버스에 선보이는 아트 드로잉 쇼와 황희중 교수의 헤어 퍼포먼스 협연이 펼쳐진다.
오창록 작가는 수묵화에 서정적 색채를 더한 작품을 보여준다. ‘스위치가워슨’ 별명으로 유명한 황희중 교수는 양손에 각각 가위 3개를 쥐고 선보인 헤어커트쇼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조회수 1000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검은 머리 카락과 먹물이 서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또 양가위 국제익스텐션협회가 펼치는 헤어 마술쇼도 준비됐다. 문의 061-381-0082.
광주문화재단은 야외 런치콘서트를 마련했다. 30일 낮 12시2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야외광장에서 어쿠스틱 소울 감성밴드 ‘조아브로(대표 조수현)’가 자작곡과 대중 가요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아브로’ 밴드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색깔을 담은 거리공연 등을 펼치고 있다. 이날 공연에서는 자작곡 ‘고개를 떨구며’, ‘다 괜찮아’, ‘연애시’를 들려준다. 또 ‘서른 즈음에’, ‘내 사랑 내곁에’, ‘벗꽃엔딩’ 등을 친숙한 곡도 공연한다.
그밖에 네이버로 생중계되는 집들이 콘서트에는 그룹 ‘장미여관’이 참여하며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오후 5시~밤 9시)에서는 3000원 할인된 5000원에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70-794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낮선 듯 낯익은 골목길 풍경

4월 19일까지 노여운 개인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흘러가다’

노여운 작가가 ‘쉼, 쉬어가다.’를 주제로 31일부터 4월1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골목길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 ‘쉬어가다’는 붉은 기운이 감도는 담벼락이 눈에 띈다. 옥상에 놓인 장독대, 대문 앞 화분, 담 위로 보이는 넝쿨 등 우리들이 오가며 본 집 근처 골목 풍경이다.
동네 허름한 통닭집, 가게 앞에 설치된 오래된 자판기, 화풍을 가득 채운 하얀 눈조각들. 작품 ‘흘러가다’ 속 풍경도 낯설지 않다. 반듯반듯 테두리선이 인상적인 건물들은 작품을 깔끔한 분위기로 만든다.
노씨는 대학시절 광주시 동구 학동 백화마을

재개발 소식을 듣고 골목길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백화마을은 백범 김구 선생의 도움으로 형성된 마을이자 노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벌어지다’, ‘지나가다’, ‘남겨지다’ 등 작품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골목길 풍경에 담긴 그리움을 그린다.
노씨는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신세계미술제 신진작가상(2014), 무등 미술대전 대상(2009)을 수상했다. 광주 로터스갤러리에서 개인전 ‘흘러가다’(2014), 서울 갤러리 그리다에서 ‘남겨지다’(2013)를 개최했다. 문의 062-360-12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어제 오늘 어찌면 내일’... 윤혜덕 첫 개인전

4월 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장미’

윤혜덕 작가가 4월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어제 오늘 어찌면 내일’을 주제로 첫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디지털 이미지 ‘픽셀’(이미지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로 표현한 그림일기식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에는 현대사회 청년들의 불안과 두려움을 형상화한 캐릭터 ‘잉여인간’이 등장한다. 작품 ‘장미’는 지구를 사이에 두고 빨간 실로 이어진 남녀를 그렸다. 어딘가에 존재했으면 하는 연인에 대한 소망이 느껴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디지털 프린트를 이용한 평면회화와 함께 나무블럭으로 만든 입체 작품도 선보인다. 입체작품이 전시된 2관에서는 관람객이 체험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다.
윤씨는 “나에게 있어 픽셀은 가장 매력적인 조형적 요소인 동시에 가장 단순하게 세상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수단이다”며 “이번 전시는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씨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미술학부 회화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전공했고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청년작가 전시공모에 선정됐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가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男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女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男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女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호텔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 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제주호텔

통나무 독재형 객실 레지던스형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한라산등반 최적지 쇼핑의 편리 엘리베이터먼트 렌트카 90% 할인 단체수요 사설연회	핀란드풍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통나무 독재형 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지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레이크힐스cc, 우리들cc, 롯데스카이힐스cc,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 정상코스 15분, 성판악 차량으로 25분 소요, 한라산 등반 최적한 입지, 차량이동시간임)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 차량이동시간임) 주중 30%, 주말 20% 할인적용(단, 성수기 : 춘성수기 - 연휴기간 제외) 벨라 15원 통나무원룸 1박 + KS or YF 소나타 24시간 79,900원 (비수기 주중 기준) 300명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벽, 150인 수용가능한 아이브를 완벽, 조·중·식식가능
---	---